

민주당 對 '安 신당' 치열한 접전 예상

■이슈&변수 통합평산단 조성 문제점 부상 도내 '안 신당' 최대 과열 지역

함평군수

민주당 소속 안병호(65) 현 군수에 맞서 '안철수 신당' 측 인사 4~5명이 출사표를 던지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 차기 함평군수 선거는 민주당 대 '안철수 신당'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안 군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후보들이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예정이어서 선거 막바지에 '신당' 측 인사들의 단일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로는 나병기(58) 전 전남도의원과 노두근(60) 전 강진부군수, 안병호(66) 함평군수, 옥부호(52) 전남도의원, 이윤성(59) 전 구례군 기획감사실장 등이다.

함평군수 후보를 내리 3선을 한 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안병호 군수는 축산농가의 지지기반과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강점을 내세우고 재선 의지를 다지고 있다.

통합형 산업단지 개발, 수산물과 무형의 가치가 재선 가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 군수는 재임기간 축재주포, 함평사랑 상품권, 이동진료차량, 실버양봉, 농·특산물 이동판매차량, 다

마 양식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성과로 꼽고 있다.

안 군수는 향후 통합평산단과 해보농단지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인구증대, 경제 활성화 등을 이뤄내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함평군의외 의장을 역임한 나병기 전 전남도의원은 '안철수 신당' 바람을 등에 업고 지역발전 위해 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현도의원, 전 강진부군수 등 출사표 신당 측 인사 막판 단일화 급물살 탈듯

나 전 도의원은 지역의 대립과 반목을 화합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을 갖춘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출마의 뜻을 밝혔다.

그는 화합과 변영이라는 희망의 불씨를 나비효과를 살려 '잘사는 함평' '오름가는 함평'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그는 "남을 배려하고 화합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며 "꿈과 희망이 있는 함평, 진정으로 내 고향 함평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절로 생길 수 있는

■함평군수 출마예정자

정당	안철수신당	안철수신당	민주당	안철수신당	안철수신당
이름(나이)	나병기(58)	노두근(60)	안병호(66)	옥부호(52)	이윤성(59)
주요경력	전8대 전남도의원 전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전국자원봉사연맹 전남지역 총재 전강진부군수	함평군수 전함평축협 조합장 (6·7·8대)	전남도의원 전함평농협조합장 (재선)	전함평읍장 전구례군 기획감사실장

※ 후보는 가나다 순

그런 고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두근 전 강진부군수는 함평군의 현 주소를 급격한 인구감소와 농어업 생산량 및 소득감소, 소득의 역외 유출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위기의 함평'을 '기회의 새 함평'으로 만들겠다고 바다 민심을 높이고 있다.

그는 어려운 함평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 농어업육성 및 유통 활성화 ▲자연생태·관광문화산업 활

성화 ▲영산강권, 용천사권, 함평만권의 삼각벨트와 추진 ▲기업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 ▲장애인·다문화가정·노인 등 더불어 사는 복지 함평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함평농협조합장 재선을 지낸 옥부호 전 전남도의원은 "젊음이 넘치는 새로운 함평, 모두가 평등한 함평'을 만들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조합장 재직시절 하나로 마트와 장례식장을 개장해 지역민의 소득 향상은 물론 편의성까지 도모한 점을 성과로 꼽고 있으며, 도의원 재임기간 중에도 농업을 위한 정책 개선에 앞장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역민 모두가 요구하는 참신하고 소신이 뚜렷한, 공정한 인물이 군정을 맡아야 된다"고 출마 배경

을 설명했다.

구례군 기획실장을 역임한 이윤성 전 함평읍장도 일제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행보를 하고 있다. 이 전 읍장은 전남도 재직 시절에 기획관리실, 지역경제, 경제통상국 등에서 근무하며 투자 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충분히 경험했고, 구례군 도시경제과장으로 재직 당시 용평농공단지 700억 원 규모의 '구례 자연드림파크' 유치를 진두지휘하여 성공시킨 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꼽고 있다. 이 전 읍장은 "그동안 쌓아온 행정경험을 심부 발휘해 통합평산단을 비롯한 여러 현안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함평=황윤희기자 hwang@

현군수 3선 도전 가도에 대항마 나설지...

영광군수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있지만 영광군은 3선 도전이 확실한 정기호(59) 현 군수 활동만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정기호 현 군수의 독주체제에 대해 일각에선 지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선 결코 바람직스러운 현상은 아니라는 견해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안철수 신당 변수가 급부상하면서 '신당 바람'에 기댄 '제3후보' 등장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군수면 출신으로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규현(49) 변호사가 정 군수의 대항마로 나설지 주목된다.

정 변호사는 최근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실행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모임에 자주 얼굴을 내밀고 있다.

또 정 변호사가 새 정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정기호 독주체제 견제 여론 만만찮아 신당 바람에 '제3후보' 등장 가능성도

높다고 밝혀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08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민선4기 군수에 당선된 정기호 군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로 나서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했다.

앞서 2006년 있었던 4기 군수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도전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종만 전 군수에 패했다. 당시 강 전 군수를 중심으로 한 '무소속 연대'의 돌풍을 받지 못 하면서, 강 전 군수에 1200표 차이로 패배한 아픈 경험도 있다.

하지만, 강종만 전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낙마하면서 기회가 찾아왔고, 민주당 후보로 도전해 당선됐다. 정 군수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서도 민주당 후보로 무난하게 재임에 성공했다. 정 군수는 안정적인 군정 운영 경험과 깨끗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3선 도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 군수는 재임기간 동안 투자유치와 문화관광, 농식품산업육성 등 군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적 발전을 이뤘다고 자부하고 있다. 특히 지역을 살릴 성장 동력으로 삼은 관광과 스포츠 마케팅에서 지역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뤘다는 것이다.

올 해 준공한 송림그린테크단지 및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준공으로 지역발전과 자립경제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군수는 "남은 임기동안 기업유

치와 농어업 소득 창출, 군민복지 증진 등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통해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선의 정 군수의 조직력이 탄탄해 다른 후보들이 향후 정치적 변화를 관망하고 출마 여부를 저울질할 뿐 직접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지 않으면서 다른 지역과 달리 영광군은 조용한 분위기다.

하지만, 항상 선거 때면 3~4명이 후보군들이 거론되고 있다. 나승만(65) 영광군의회 의장과 이동권(50) 전남도의원 등도 유력 후보군으로 거

론되고 있지만, 출마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 상황은 변할 수 있다는 게 지역 정치 분석이다.

안철수 신당 창당이나, 기초단체장 공천제 폐지 등 아직까지는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던 입자들이 움직일 여지는 남아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영광=조익성기자 ischo@kwangju.co.kr

신당·무소속 후보 부상 관심 정당 공천제 폐지 등도 쟁점

'차간 속의 태풍'.

내년 영광군수 선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다.

변수도 적고, 출마자도 나타나지 않아 '분위기가 만 있고 실체는 없는' 형국이다.

내년 영광군수 선거는 현재까지는 정기호 영광군수에 대항할 뚜렷한 입지가 없다.

현재 영광 군수의 변수로 떠오르는 것은 안철수 신당의 바람과 무소속 돌풍이다. 전남지역에서도 안철수 신당의 바람이 거세게 분다면, 선덕 출마할 인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군수 선거에서 당선했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중도 하차한 강종만 전 군수의 출마 가능성도 지역민들의 입에서 조짐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강 전 군수는 지난해 만기 출사 후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역

민과 꾸준히 접촉해왔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아닌 뇌물수수로 인한 낙마여서 강 전 군수에 대한 지지도가 예전같지 않아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지역 정치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자격정치 기간에 묶여 있어 대통령의 복권이 없는 한 군수출마는 불가능하다.

또 안철수 신당 창당이나, 기초단체장 공천제 폐지 등 정국 변수와 맞물려 그동안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던 입자들과의 합종연횡에 따른 새로운 후보가 등장할 수도 있다.

현재는 정 군수 이외의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안철수 신당 등의 변수가 구체화 된다면, 언제라도 후보군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원룸전문(전대1분)

★전대 상대 농대1분★

- 룸11개(1층 상가) ●월수익 420만. 준공완료
- 매가 5억9천(보증금 2000, 용 1억2천)

★전대 정문 1분★

- 룸18개(만실) ●월수익 600만
- 매가 6억9천(보증금 2억, 용 1억2천)

★전대상대2분 용봉지구★

- 룸19개(1층 상가, 주택1개)
- 월수익 850만 ●매가 12억(용 4억)

★화정동 APT 입구 코너★

- 1층 상가, 2층상가, 3층룸9개, 4층룸9개
- 월수익 1300만 보3억 ●매가 19억

★남구 백운동 ★

- 룸15개(주택1개) ●매가 8억8천

★전대정문 1분 ★

- 룸15개 (만실) ●매가 6억3천 (보증금 4천 월510, 용 1억2천)

신한공인중개사
H.P. 010-6670-9800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 호남대학교
어등산골프장 →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2475-0933
010-5166-0013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특랑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해 해수욕장과 리조트 등 최고의 위락시설과 어울린 절경의 고급별장

**토지 4,900㎡
건물 245㎡**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100%) 건물에 수입창호 등 최고급 자재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집.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차별한 문은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싼 도심속 전원 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숲속의 전원 주택부지 및 사찰용지로도 적합.

**전 3,700㎡
매가 ㎡당 105,000원**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회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신축원룸

(전대·상대·농대 쪽문임)

원룸

14개를 ▶ 11개로
최고위치!
1층상가
(2~4층 원투트림룸)
등기완료
(전면대리석, 벽돌집)
보증금 3천 월435
(연 5천2백)
매가 5억9천
(용1억3)

수원지구 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3층매매(85평)
3억2천

1층임대(18평)
보3천 월130만
3층임대(86평)
보3천 월190만

062)527-7600